

## ‘삼불정책’을 넘어 ‘입시폐지’로

2007. 5. 12.

청소년 다함께 포럼

이형빈 (이화여고 교사, party21@chol.com)

### [참고자료 1]

## 기득권층의 ‘거침없는 하이킥’ - 3不 폐지론의 실상

### 1. 3不 폐지 - ‘당신들의 입시공화국’

대한민국은 입시공화국이다. 교육부가 어떤 입시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주요 대학이 어떤 입시요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60만 수험생과 그 가족들은 아니 수백만의 초·중·고 학생들은 때로는 수능학원으로 때로는 논술과외로 내몰린다. 교육부가 편찬한 교과서 위에 수능 문제집이 있고,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 위에 각 대학의 입시안이 있다. 국가경쟁력 확보니 창의적 인재 양성이니 온갖 가지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우리나라의 교육의 목표는 오직 하나, 명문대 입학이다.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 초등학생들은 동심을 저당 잡히고 중고등학생은 밤늦게까지 청춘을 저당 잡힌다.

지금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른바 ‘저주받은 89년생’으로 불린다. 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내신-수능-논술 삼중고)’로 불리는 2008학년도 입시안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1학년 때 생전 처음 접해보는 ‘내신등급제’로 신음했다. 과거의 ‘수, 우, 미, 양, 가’ 식의 절대평가가 아닌 ‘상위 4%까지는 1등급, 상위 11%까지는 2등급’ 하는 식의 상대평가를 적용받게 되었다. 그 결과 ‘친구의 노트를 훑치는’ 가혹한 경쟁체제를 교실 안에서 체험하게 되었다. 이들은 2학년에 올라와 어느 날 갑자기 서울대를 중심으로 ‘논술 본고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접하게 된다. 교과서와 문제집을 가지고 5지 선다형 찍기 문제에 씨름하던 이들은 이제 느닷없이 ‘창의력 신장’의 깃발을 높이 들고 논술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이들이 3학년에 올라오자마자 고려대, 연세대 등 상위권 사립대학에서 수능의 비중을 강화하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아이들은 이제 ‘창의력 신장’의 깃발을 내리고 다시금 EBS 수능 강의에 접속하기 시작했다. 참교육은 간데 없고, ‘창의력’이니 ‘경쟁력’이니 하는 온갖 요란한 깃발만 나부끼고, 아이들은 ‘합격’이라는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림이 없다.

과연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몇 번이나 바뀌었을까? 그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입시 제도의 흐름 속에 유유히 관철되고 있는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는 해방 이후 16차례 바뀌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변화의 흐름 속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본질이 존재한다. 입시 제도는 자주 바뀔수록, 입시 제도가 복잡하

고 어려워질수록 온갖 정보를 빠르고 쉽게 획득하여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부유층의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소위 명문대에 합격하려면 '부자 아빠, 영어 되는 엄마' 밑에서 고액의 사교육을 통해 내신, 수능, 논술을 모두 준비해야 하고 한번쯤은 해외 유학을 다녀와야 하고 각종 대회 수상 경력이나 고득점의 TOEIC 성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문을, 노동자 민중의 자녀가 통과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런 점에서 입시제도는 철저히 계급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는 속설은 이제 경험적 진실이 되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SKY 대학 학생의 30%가 서울 강남지역과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라는 통계자료는 이제 조·중·동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얼마 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만약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지금 태어났다면 아마 서울대에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지 않았던가. 오로지 학교 공부와 동네 보습학원에 의존하는 노동자 민중의 자녀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학입시란 '그들만의 리그'일 따름이다. 이러한 '그들만의 리그 - 교육을 통한 계급재생산'을 아예 노골화하겠다며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고 있는 것이 바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3不 정책 폐지' 주장이다.

## 2. 3不 폐지론의 속내 - '대한민국 1%'를 위한 높은 장벽

### (1) 고교 등급제

각 고등학교를 서열화하여 학생 개인이 아닌 출신 고교에 따라 각기 다른 입학 기준을 부여하려는 고교 등급제는 현대판 '연좌제'이다. 아무리 성적이 좋고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 학생이 강남 지역이나 특목고 학생이 아니라면 대학 진학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 1항에 대한 전면 도전이다.

고교 등급제의 실상이 폭로된 2004년 이후에도 기득권층은 끊임없이 고교 평준화 정책을 문제 삼으며 고교 등급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이미 지금도 고교 등급제는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다. 대학의 수시 입학에서 당락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내신 성적이라기보다는 구술 면접, 자기 소개서 등 서류 전형이다. 그 과정에서 한 학생이 어느 지역 고등학교 출신인가, 어떤 집안의 자녀인가 하는 점이 암암리에 작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특목고 비교내신제'(특목고 출신 학생들의 경우 수능 성적을 가지고 환산한 점수로 내신 성적을 같음하는 제도) 역시 고교 등급제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강북이나 지방 아이들은 아예 원서 쓸 생각도 하지 말라는 고교 등급제 -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이 넘어오지 말라고 자기네 아파트 단지 담벼락에 철조망을 치듯, 그들만의 높은 장벽을 쌓아 놓고 '대한민국 1%'를 사수하기 위해 애쓰는 이 시대 기득권층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 (2) 대학 본고사

대학 측은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대학 본고사' 부활을 주장한다. 하지만 1998년부터 대학입학은 실질적으로 자율화된 이후 대학의 학생 선발의 자율권은 거의 자유방임주의 수준으로 보장되어 있다.<sup>1)</sup>

교육부는 다만 내신, 수능, 대학별고사 등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형요소를 나열해 놓았을 뿐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대학에 넘겨 놓은 상태이다. 내신 성적을 0% 반영하고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든, 오로지 논술 고사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든 그것은 대학 측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여전히 논술 고사 외의 대학 본고사 시행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신이나 수능, 논술보다도 더 촘촘한 잣대로 학생 선발의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그리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한 소수의 엘리트(?)를 손쉽게 선점하려는 의도이다.

그러하기에 대학 본고사는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고난이도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대학 본고사가 시행되었던 70년대 서울대 본고사는 철저히 국, 영, 수 중심의 지식을 측정하는 문제였다. 게다가 시험 문제가 어렵기로 악명이 높아 합격선이 100점 만점 가운데 30점 정도였다. 이처럼 어려운 문제를 치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고액의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 본고사 시행의 수혜자는 부유층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논술 고사로도 학생을 변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대학들이 앞으로 어떤 형태의 본고사를 치르려 할지 알 수 없다. 이미 상당수의 대학에서는 TEPS나 TOEIC, TOEFL 등의 영어 성적을 반영하고 있고 심지어 고려대 등 일부 대학은 미국의 수능 시험인 SAT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도 있다. 게다가 최근 타결된 한미 FTA 협상에 의하면 '테스팅 서비스' 시장도 개방이 되었다. 이제 어쩌면 미국의 SAT가 한국의 수능 시험을 대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 (3) 기여 입학제

'유전 명문대, 무전 삼류대', 기여 입학제는 두 말할 필요조차 없이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이 기여 입학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단 하나 대학 제정이 어렵다는 이유이다. 소수의 부자의 돈을 받아 대학의 제정을 튼튼히 하여 다수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돌리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이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의하면 수많은 사립대학들이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학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수십 억대의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들은 재정 부족을 탓하며 학생 등록금을 연간 천만 원대로 올려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더니 이제는 거액을 기부하는 학생에게 대학 합격증을 팔겠다고 한다.

연암 박지원은 그의 소설 <양반전>을 통해 돈을 주고받으며 양반 문서를 매매하는 세태를 풍자하였다. "문과의 홍패(紅牌)는 길이 두 자 남짓한 것이지만 백물이 구비되어 있어 그야말로 돈자루인 것이다."라는 양반의 특권을 듣고 난 부자가 "그만 두시오. 장차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인가."라는 말을 남기고 두 번 다시 양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도

####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 ① 대학의 장은 ...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의 장이 ... 논술고사외의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돈을 받고 합격증을 팔려는 대학들, 그리고 그 합격증을 사서 온갖 혜택을 누리려는 기득권층, 우리 아이들을 도둑놈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 3. 3不 정책으로는 부족하다. 대학 평준화, 무상교육 실현!

#### (1) 고교 등급제, 고교 평준화 완성으로 넘어서야

대학 측이 줄기차게 고교 등급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지역 간에 학력 격차가 존재하므로 내신 성적을 그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공교육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역 간 학력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지역마다 다양한 경제적, 문화적 여건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한 학생이 그러한 여건에서 최상의 결과를 냈다면 그것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만약 지역별 교육 격차가 그토록 문제라면 그 격차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지, 그 격차를 근거로 학생들을 출신 고교에 따라 차별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특목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본래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의 설립 목표는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특목고의 실상은 외국어, 과학 계열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일류 대학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만약 대학 측이 외국어 학과를 진학하려는 외국어고 출신 학생들에게, 자연계열을 진학하려는 과학고 출신 학생들에게 일정 정도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법대를 가려는 외국어고 출신 학생들에게도, 의대를 가려는 과학고 출신 학생들에게도 대학은 일방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흔히 보수 세력들은 고교 평준화 정책이 '획일화된 교육'이라는 비판을 한다. 하지만 우리 교육을 획일화하는 주범은 평준화 정책이 아니라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서열체제로부터 비롯된 가혹한 입시교육이다. 또한 평준화 정책이란 흔히 오해하듯 단순히 '뽕뽕이'로 학생을 배정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영재에게나 장애 학생에게나, 서울지역 학생에게나 산골마을 학생에게나 모든 이에게 '질 높은 공교육을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평준화의 진정한 취지이다.

따라서 우리 교육의 문제는 평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준화의 미완성'에 있다. 여전히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아 있어 가혹한 고교 입시를 치르고 있는 지역에게까지 평준화는 확대되어야 한다. 입시 명문고로 전략한 특목고가 진정한 설립 취지에 따라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 가정의 배경이나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고교 등급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나아가 평준화 정책은 이제 대학교육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 (2) 대학 본고사, 대학 평준화로 넘어서야

대학 본고사 논란의 핵심은 과연 각 대학이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회사에 들어올 신입 사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사가 선발권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대학 입시와 회사 입사는 그 근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 이유는 대학 입시란 한 학생이 국가 차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공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시제도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마련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미 한국의 대학은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행사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일본 등 극소수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 서로 다른 입시 전형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것도 모자라 대학 본고사를 통해 학생 선발의 변별력을 더욱 높이겠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가혹한 입시경쟁체제를 학생들에게 강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표현대로 현재의 '죽음의 트라이앵글(내신-수능-논술)' 위에 '삼불 폐지'라는 고통을 더해 '죽음의 삼각뿔'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는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서열화체제가 있다. 대학서열화체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어떤 입시제도가 등장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학서열화체제의 해소는 곧 평준화의 완성, 대학 평준화를 의미한다.

대학 평준화란 흔히 오해하듯 '뽕뽕이'도 아니고 '서울대(라는 학교 하나의) 폐지'도 아니다. 프랑스처럼 모든 대학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를 통과한 학생이면 누구에게나 입학할 보장하여 '입학은 쉽게' 하되, 대신 '졸업은 어렵게' 하는 엄격한 학사 관리를 한 후, 졸업생들에게 공통의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3불 3통 정책'이라 표현했듯이 '3불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학이 공통의 입시 전형, 공통의 학점 이수, 공통의 졸업자격시험을 통해 대학평준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나아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부실, 부패 사립대학을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하여 대학평준화 체제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두 번의 평준화 전환을 경험한 바 있다. 한 번은 초등학교 과열 입시 경쟁을 부추겼던 중학교 입시를 폐지하고 중학교 평준화를 실시한 것, 또 한 번은 명문고 진학 열풍을 낳았던 고교 입시를 폐지하고 고등학교 평준화를 실시한 것이다. 그 과정에는 가혹한 입시 교육으로 고통을 겪었던 아이들의 절규, 그리고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뒷받침됐다. 이제는 대학 평준화를 통한 대학 입시의 폐지를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요구해야 할 때이다.

### (3) 기여 입학제, 무상교육 실현으로 넘어가야

교육은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만인의, 만인에 의한, 만인을 위한 권리이다. 또한 교육 기회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전 국민을 위해 보장해야 할 성격의 것이다. 그러하기에 교육비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31조 3항)"이라 명시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공교육 확대의 역사는 곧 무상교육 확대의 역사였다. 그리고 교육의 기회 균등, 무상교육의 확대는 노동자 민중의 처절한 투쟁을 통해 확보한 성과물이다. 돈이 없어 교육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사회는 이미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무상교육의 의미는 단순히 돈을 내지 않고 교육을 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흥세화 선생이 지적했듯이 무상교육은 곧 세대 간, 계층 간의 사회적 연대를 의미한다. 기성 세대가 다음 세대의 교육을 책임지고, 그 세대가 기성 세대의 노후를 책임지는 세대 간 연대의 실현이다. 또한 부유층의 세금으로 저소득층의 교육비를 뒷받침하는 계층 간 연대의 실현이다. 그러하기에 개개인이 획득한 학력을 개개인의 출세를 위해 사유화하지 않고 다시금 사

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연대가 실현될 수 있다. “내가 낸 돈으로 대학을 다녔으니 사회에 나가 그에 합당한 이익을 챙겨야지.”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낸 돈으로 대학을 다녔으니 사회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야지.”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

기여 입학제는 전혀 반대의 논리이다. 돈을 내어 입학증을 사고, 학벌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기득권층의 논리이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듣게 되는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왜 간섭이냐?”라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논리이다.

온갖 회계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교육 제정이 부족해 기여 입학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대학은 스스로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대학을 사회에 환원하면 될 일이다. 그러한 부실 부패 사립학교는 국공립으로 전환시키고 대학 평준화의 대장정에 동참시키면 될 일이다. ‘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 완전한 무상교육의 실현’으로 기여 입학제에 맞불을 놓을 일이다.

#### 4. 이제, 근본적인 입시 제도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얼마 전 금속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생활하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을 묻는 질문에 37.0%가 사교육비, 23.5%가 주택문제, 18.5%가 노후대책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노동자 민중이 아무리 임금인상 투쟁을 하고 뺄 뺄하게 잔업을 하며 한 푼 두 푼 저축을 해 봐야 전문학적 규모로 치솟는 사교육비, 대학등록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3不 정책 문제를 비롯한 입시 문제는 결국은 계급, 계층의 문제이다. 기득권층은 현재의 교육 불평등 현실에도 만족하지 않고 ‘3不 정책 폐지’라는 ‘거침없는 하이킥’을 날리고 있다. 이제는 ‘3不 범제화’라는 방어적 수단뿐만 아니라 나아가 노동자 민중을 위한 평등한 교육권의 확립, 대학 평준화와 무상교육 실현이라는 공세적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 공간을 이러한 계급, 계층적 교육 쟁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학 평준화와 무상교육 실현은 어찌 보면 요원한 과제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 이외로는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 가중, 한창 꽃 피어야 할 나이에 스스로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입시 지옥이 사라질 수 없다. 이제는 근본적인 입시 제도의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액의 학원비를 마련해서라도 내 자식만은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개인적 욕망을 뛰어넘어 노동자, 민중의 자녀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꾸어야 한다. 교육은 기득권층이 자신의 권력을 대물림하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인간의 전면적인 발달을 돕는 고귀한 노동이어야 하며,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꾸도록 하는 일이어야 한다.

[참고자료 2]

## 서울대-고대 합격 비결

###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

#### 1. 지역균형선발 (2학기 수시 모집)

- (1) 모집 인원 : 모집 정원 중 26% 831명 (고교 당 3명 지원 가능)
- (2) 최저 학력 기준 : 수능 2개 영역 2등급 이내
- (3) 전형요소 : 내신 80%, 서류 10%, 면접 및 구술 10%

#### 2. 특기자 전형 (2학기 수시 모집)

- (1) 모집 인원 : 모집 정원 중 29% 930명
- (2) 최저 학력 기준 : 수능 2개 영역 2등급 이내
- (3) 전형요소 : 서류 평가 (각종 대회 수상 실적) 50%, 면접 구술 및 논술 50%

#### 3.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정원 외 모집)

- (1) 모집 인원 : 전체 모집 정원 대비 0.6% 20명
- (2) 최저학력 기준 : 수능 2개 영역 2등급 이내
- (3) 전형요소 : 수능 50%, 내신 30%, 면접 및 구술 20%

#### 4. 정시 모집

- (1) 모집 인원 : 모집 정원 중 44% 1401명
- (2) 전형 요소
  - ① 1단계 : 수능 성적으로 모집인원의 2배수(인문계), 3배수(자연계) 선발  
(1등급 - 수리 45점, 언어 36점, 외국어 36점, 탐구 36점, 제2외국어 9점)
  - ② 2단계 : 내신 50%, 논술 30%, 면접 및 구술 20%  
(내신 산출 방법 : 2등급까지 만점)

### 서울대에 가려면?

(1) 농촌으로 전학 가서 전교 1등을 하고 수능 2개 영역 2등급을 맞아 농어촌특별전형에 지원한다. 하지만 모집 인원이 2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전교 3등 안에 들어 학교장 추천을 받고 지역균형선발에 지원한다. 수능 2개 영역 2등급은 필수. 하지만 모집 정원 중 26%밖에 되지 않아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기 때문에 고

교 3년 6학기 70여 과목 대부분을 1등급 받아야 한다. 친구에게 노트를 빌려주는 따위의 알량한 선행은 절대 금물! 대여용 노트와 학습용 노트 두 가지를 만드는 비법이 있기는 하다.

(3) 어려서부터 한 가지 분야만 집중 관리하여 특기자 전형을 준비한다.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 올림피아드 전국대회 1등을 받는다. 그리고 논술 과외를 꾸준히 받아 논술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다. 모집 정원 중 29%를 뽑기 때문에 강남, 특목고 출신이라면 도전할 만하다.

(4)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 정시에 올인한다. 우선 수능 네 개 영역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야 1단계 통과를 안심할 수 있다. 특히 수리영역에서 2등급을 받으면 통과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에 주의해야 한다. 내신 2등급까지는 만점을 주니 수능보다는 소홀히 해도 된다. 하지만 고교 3년 6학기 70여개 과목 중에서 아차 하는 순간 3등급을 받는 과목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이를 조심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수능과 내신 만점 아이들끼리 모이니 당락을 100% 좌우하는 것은 논술이다. 학교에서 해주는 논술만으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 대치동 명품 논술 학원을 다닌 아이들이 수두룩하니 그들을 이길 전략을 세워야 한다.

## 2008학년 고려대 입시안

### 1. 수시1학기 모집 (국제학부 30명 내외)

- (1) 지원자격 : 외국어전문교과 82단위 또는 국제전문교과 82단위 이수자  
TOEFL 270점 또는 TEPS 900점 이상자
- (2) 전형요소 : 1단계 서류(60%) + 영어면접(40%)  
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TOEFL/TEPS, AP, 수상경력(국제), 제2외국어공인성적

### 2. 수시2학기 모집 (입학정원의 약 35%)

- (1) 일반전형(30%)
  - ① 우선선발
    - 1) 모집인원 : 모집단위별 모집정원의 최대 50%
    - 2) 최저학력기준: 수능 수리, 외국어영역 모두 1등급 이내
    - 3) 전형요소 : 학교생활기록부(20%) + 논술(80%)
  - ② 일반선발
    - 1) 모집인원 : 우선선발 후 인원
    - 2) 최저학력기준 : 수능 2개 영역 2등급 이내
    - 3) 전형요소 : 학교생활기록부(50%) + 논술(50%)
- (2) 특별전형(약 5%)
  - ① 글로벌인재 (인문계 100명 이내)
    - 1) 지원자격 : 외국어전문교과 82단위 또는 국제전문교과 82단위 이수자  
TOEFL 270점 또는 TEPS 900점 이상자
    - 2) 전형요소 : 서류(60%) + 논술(40%)



- 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TOEFL/TEPS, AP, 수상경력(국제), 제2외국어공인성적
- ② Global KU (인문·자연계 40명 이내, 국제학부 10명 이내)
- 1) 지원자격 : 국내외 고교졸업(예정)자로서 외국고교에서 2년이상을 수학한 자
  - 2) 전형요소 : 서류(50%) + 고교 성적(50%)
- 서류 - SAT I, 추천서, SAT II, TOEFL, TEPS, AP, 수상경력(국제)
- ③ 과학영재 (60명 내외)
- 1) 지원자격 : 과학 전문교과 이수자
  - 2) 전형요소 : 학교생활기록부(30%) + 서류(20%) + 수리면접(50%)
- ④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20명 이내)
- 1) 지원자격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교육기회균형제공, 소년소녀가장 및 아동보호시설출신자
  - 2) 최저학력기준 : 수능 3개 영역(언,수,외)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 3) 전형요소 : 학교생활기록부(60%)+ 서류(40%)

### 3. 정시모집 (입학정원의 약 65%)

#### (1) 일반전형

① 전형요소 : 학교생활기록부(50%) + 수능(40%) + 논술(10%)

※ 수능우선선발 : 일반전형 지원자 중 수능 100%로 모집단위별 모집정원의 최대 50%까지 우선선발

#### (2) 실업계 특별전형

① 지원자격 : 수능 3개 영역(언,수,외) 2등급 이내

## 고려대에 가려면?

(1) 가장 깔끔한 방법은 어려서부터 영어 한 가지만 올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TOEIC, TEPS, SAT 등에 고득점을 따면 된다. 그래서 국제학부나 글로벌 인재, 글로벌 KU에 지원하면 된다. 내신 실질반영비율은 0%에 가까우니 논술만 조금 더 공부하면 된다. 아예 내신이나 논술 신경 쓰기 싫으면 국제학부만 노리면 된다.

(2) 특목고에 가거나 해외 유학을 가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특별 전형은 특목고 출신이나 해외 유학 경험이 없으면 아예 지원할 수가 없다. 특목고에 가면 내신이 불리할 거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특목고 비교내신제'를 통해 수능 점수로 내신 점수를 환산해 준다.

(3) 수능에 올인하면 좋다. 모집 인원이 많은 정시의 경우 수능 성적으로 '우선선발'에 통과하면 내신이나 논술은 아예 반영도 하지 않는다. 수시의 경우 전 영역 1등급이면 '우선선발'에 통과하여 2단계 논술을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

(4) 내신으로 승부를 걸려는 학생이라면 아예 고대는 쳐다보지도 않는 게 좋다. 내신이 반영되는 수시 모집 '일반선발'은 어차피 '우선선발'을 하고 나서 남은 인원으로 배정하니

몇 자리 남을 리 없다. 정시모집 '일반선발'은 모집 인원도 적을 뿐 아니라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과 논술이 함께 반영되므로 이 관문을 통과하기란 정말 어렵다.

## 2007년, 고3 학생들의 굴욕

1학년 때 : 우씨~ 열라 짬뽕나! 왜 우리 때부터 입시제도가 바뀌는 거야? 중3때 팡팡 놀다가 고등학교에 올라와보니 세상에 '내신등급제'라는 걸 한다네... 이건 말이지 아주 죽음이야 죽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남들보다 더 잘하지 않으면 절대 등급이 오르지 않아. 우리학교 학생이 모두 400명이니 1등급을 하려면 16등에 들어야 해. 한 반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가 일등급을 맞는 셈이지. 2학년 언니들은 90점만 넘으면 '수'를 받는데 왜 우리는 4%에 들어야 1등급을 받는 거야? 이걸 졸업할 때까지 수능을 총 12번 보는 거나 똑같다니까. 그러다보니 시험 기간만 되면 진짜 반 분위기 싸~해. 노트? 절대 안 빌려줘. 심지어 이중 노트를 만들어서 이상한 노트 빌려주는 애들도 있다네. 에이~. 그래도 내신 성적만으로 대학가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니까 할 수 없지 뭐.

2학년 때 : 허걱~. 통합논술이 뭐야? 대학이 내신이나 수능의 변별력을 믿을 수 없어서 논술의 반영 비율을 대폭 늘린대. 아니 배우지도 않았던 논술을 갑자기 어떻게 준비해? 창의력? 통합적 사고? 즐! 맨날 교과서에 줄차고 문제집 풀다가 창의력, 통합적 사고력이라니? 강남 애들을 벌써 논술 학원 다니기 시작한다는데 난 어떡하지?

3학년 때 : 헐~. 연대나 고대는 논술 비율 줄이고 수능 비율 늘린대. 수능 한 가지로만 뽑는 인원도 있다. 에이~ 내신, 논술 다 때려 치고 EBS 수능 강의나 듣자. 그러다고 강남이나 특목고 애들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래서 우리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갇힌 '저주받은 89년생'이라니까. ㅠㅠ;;

### <꽃들에게 희망을>

1. 나의 사랑아 이제 네 눈을 떠 봐요. 삶의 참된 의미를 찾아보아요.  
네가 올라있는 그들은 너의 사랑 이제 내려와 모두 함께 노래 불러
2. 나의 귀여운 사랑 나비야 날아라. 세상 저 모든 꽃들에게 희망을  
너의 줄무늬 처진 걸옷을 벗어라. 그때 세상의 모든 꽃들 노래하리.

(후렴) 네가 추구하던 세상의 허황된 것 허공의 쌓아진 시기와 질투의 탑일 뿐  
오욕과 싸우면서 세상의 아름다운 사랑 이루어요.

너 비록 추한 물골의 자그만 에벌레이나 너 죽어 사라질 때 그 위에서 떠 날으는  
한 마리 나비 되어 들판에서 피어 있는 이 꽃들에게 희망을